

트렌드 & 스타일

오늘밤 나도 주인공이고 싶다

연말 파티용 메이크업

연말이 가까워지면 여자의 마음은 설렌다. 각종 '파티'와 '모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껏 스타일을 뽐내도 어색하지 않은 자리만큼 곁감한 옷차림으로 '꽃단장' 하는 여성들이 많다.

지금까지 의상에만 신경 써 왔다면 올해는 '파티용 메이크업'에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 눈을 강조한 스모키 메이크업은 세련되고 도도한 이미지로 변신할 수 있는 최고의 화장법이다. 최근 종영한 MBC 드라마 '환상의 커플'에서도 화려한 이미지의 조안나(한예슬)는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더욱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눈 위, 아래를 짙은 컬러로 꼼꼼하게 칠해 그윽하고 관능적인 눈매로 표현하는 것이 스모키 메이크업의 매력이지만 잘못했다간 눈 주위가 까만 '팬더'가 되기 쉽다. 인상이 강렬해 보여 무서워 보이 수도 있다. 화장에 서투른 사람이라면 아이리너를 그리는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파티 퀸'(party queen)을 꿈꾼다면 스모

눈 강조 '스모키 메이크업' 세련되고 도도 포인트는 한 곳만... 색조화장은 튀지 않게

키 메이크업에 도전해 보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색다른 이미지로 변신할 수 있다.

스모키 메이크업은 깨끗한 피부 표현이 기본이다. 자칫 지지부진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잡티가 있다면 컨실러 등으로 꼼꼼하게 감춰 주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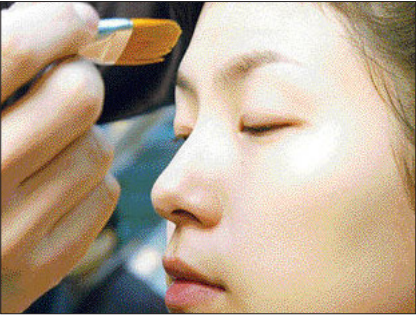
눈이 강조된만큼 볼터치나 입술 등 다른 색조 화장은 튀지 않는 색상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라데이션 고혹적인 눈매를 강조할 수 있다. 욕심을 부려 볼터치나 입술에 힘을 줄 경우 화장이 지나치게 짙어보여 '비호감 1순위'에 등극할지도 모른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내 얼굴에서 경극 배우를 떠올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포인트는 한 곳에만 줘라'는 철칙을 잊어서는 안된다.

진한 화장이 부담되는 중장년층 여성이라면 썬키퍼 라인에만 짙은 컬러를 발라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그 위에 연한색의 아이 섀도를 발라 그라데이션(짙은 색에서 얇아지는 것)기법으로 마무리한다. 블랙이나 그레이를 사용하는 원소 스모키 메이크업 외에도 바이올렛, 브라운, 골드, 카키 등 다양한 색상을 이용해 다채롭게 표현해 보자.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①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붓이나 메이크업 스펀지를 이용해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골고루 펴 바른다. 잡티가 있는 부분에는 컨실러를 꼼꼼히 펴 발라준다.



② 아이섀도

아이 섀도를 바른 후 아이리너를 꼼꼼히 칠한다. 짙은 컬러에서 연한 컬러로 그라데이션 한다는 생각으로 바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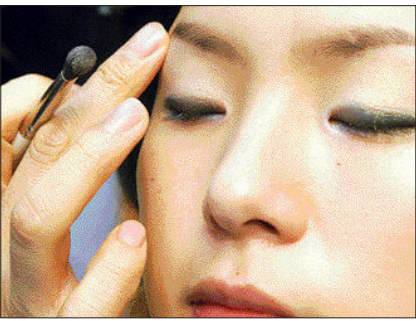
③ 아이라인

눈 위뿐만 아니라 눈 아래 접막 부분에도 아이리너를 칠한 뒤 아이섀도를 덧바른다. 마스크라는 풍성한 느낌이 들 정도로 칠해준다.



④ 하이라이트

이마와 콧대 등 T존 부위와 눈썹 뼈에 하이라이터를 바른면 얼굴이 작아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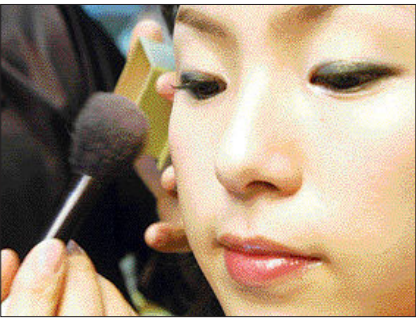
⑤ 글로스

입술에는 투명한 립글로스나 차분한 컬러의 립스틱을 바른다.



⑥ 볼터치

볼터치는 볼에서 턱쪽으로 사선 방향으로 칠하되 농도를 조절하면서 조금씩 덧칠한다.



이번 연말 파티에서는 '스모키 메이크업'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보자. 그윽하고 매력적인 눈매로 '파티퀸'이 될 수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피부미인, 바르는 것 보다 지우는 것이 먼저

피부 미인의 첫걸음은 '바르는 것'이 아니라 '지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일이다'는 더 중요하다'는 모 화장품 브랜드의 광고가과 처럼 클렌징은 피부관리의 기본이다. 특히 '파티 메이크업'처럼 팔이 진득 들어간 진한 화장을 했을 때 클렌징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여드름과 모공 확장 등 각종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얼굴을 닦아내는 것은 피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잔주름이 생기기 때문이

다. 클렌징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클렌징 종류, 이렇게 다양해졌다 크림을 얼굴에 바른 뒤 쓱쓱 닦아내던 예전의 클렌징은 있어라! 클렌징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색다른 클렌징들이 등장하고 있다. 크림보다 훨씬 가볍고 산뜻한 로션부터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젤 등 다양하다. 워터 류는 가벼운 화장을 지우는 데 유용하며, 세정력이 강한 오일 류는 한 번에 화장을 깨끗이 지울 수 있어 편하다. 가루 타입의 클렌징 폼은 효소 세안제는 자극이 적으면서도 묵은 각질까

지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한다. 클렌징, 제대로 하는 방법? 클렌징 시간은 3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깨끗이 지운다며 오랜 시간 얼굴을 문지르면 노폐물을 다시 모공 속으로 들어오는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1~2분 정도 부드럽게 문지른 뒤 물로 헹구면 된다. 지나치게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금물. 체온과 비슷한 온도인 35~36℃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다. 마무리에는 찬물로 얼굴을 가볍게 두드려 주듯이 마사 지 하면서 마무리한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LC타워(주)
첨단지구 LC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가공인중개사
상가건물 매매
중요로 대지 75평 5500만 2억 7000만 2억
다양한 분양권 매매 1억 9000만 2억 7000만 2억

믿음공인중개사
첨단지구, 쌍암동, 월계동
상업지역 상가건물 매매
대지 180평 건평 368평, 5500만 1억

(주)홈부동산
정밀하고 과학적인 검증
(주)홈부동산
리서치
중개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
10년전부터 투자의 길을 이끄는 사람들
(주) 525-0021, 친철상담 011-612-3421